

『地球典要』에 나타난 최한기의 지리 사상

The Geographical thoughts of the *Jigujeonyo* of Choi, Hangi

노혜정(서울 공항공고등학교, nohhye@chol.com)

惠岡 崔漢綺(1803~1877)는 독자적인 氣哲學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, 한편으로 실학파의 철학적 기초를 확립하고 심화시켰으며, 다른 한편으로 기철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한국철학의 기반을 확장시킨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. 이 논문에서 최한기에 대해 주목하는 바는 첫째, 그가 비록 지리학자로 보다는 철학자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그가 남긴 저술 속에 오늘날의 지리학자들에 의해 지리학적 상상력의 원천으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점이다. 둘째, 한국의 현대 지리학은 서양 지리학을 도입하면서 사실상 새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다. 그리하여 서양 학문을 수용하여 많은 결과물을 내놓은 최한기의 지리학적 업적을 통해 서양 지리학 수용 과정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.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최한기의 지리적 관심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지리지 『地球典要』의 지리관을 밝히고자 하였다.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(1) 『지구전요』(1857)는 당시에 중국에서 입수할 수 있었던 『地球圖說』, 『海國圖志』, 『瀛環志略』과 같은 서적들을 참고하여 최한기가 정한 '氣化'와 '實用'의 기준에서 취사선택하여 편집한 세계 지리지이다. 책은 최한기 본인이 쓴 서문과 범례, 지구 과학적 내용, 세계 지리적 내용, 해양 및 동 서양 문화에 관한 내용, 천문도와 세계 지도 각국 지도로 이루어진 지도첩으로 구성되어 있다. 최한기는 책의 서문에서 地球 運化 즉 氣化를 인식하고 깨달아(인식론적 측면) 人道를 실현하기 위해(실천론적 측면) 『지구전요』를 편찬하였다고 밝혔다.

(2) 氣哲學-地志學-『地球典要』라는 연속성의 관점에서 『지구전요』에 담겨있는 지리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. 첫째, 氣로 통합되는 유기체적 관점: 유기체의 생명 원리를 自然으로 보고, 자연을 탐구하여 物理를 인식함으로써 事理와 人道가 성립된다고 보았다. 둘째, 경험적·객관적 지리 인식 셋째, 실용의 강조: '氣化'를 기준으로 한 독특한 지지 항목 구성을 통해 인간을 인식과 변통의 주체로 세웠다.

그리하여 ① 『지구전요』는 세계 각국의 지리에 대한 요약된 사실만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천체로서의 지구와 지구에 사는 인간과 사회를 '기학'의 체계로 엮어보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. ② 세계 지리지인 『지구전요』의 편찬 배경에는 사는 곳에 집착함으로써 생기는 편견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.(인식론적 측면) ③ 『지구전요』를 통해 세계 각 지역의 풍토와 물산은 다르나, 倫理와 政教는 변통하여 기학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'大同사회'를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.(실천론적 측면)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통해 『지구전요』는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세계 지리지라고 할 수 있다.